

스쿨존 단속강화에도 한 달간 법규 위반 5만여 건 넘어

교육부,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결과
제한속도 등 교통법 미이행 많아
주변 시설 중 위반업소 3234건
부과 과태료·벌칙금 71억 달해

개학 후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적치물, 불법주차·과속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5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교통안전·유해환경 등 정부가 6개 분야로 부과한 과태료·벌칙금은 71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한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점검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추모 물품들이 놓여 있다. /뉴스시

업통상지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78개 기관이 참여했다.

◆**횡단보도·과속 단속 카메라 없는 곳도… 당국 “해당 지자체에 개선 독려”**

점검 결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했다. 이에 부과된 과태

료·벌칙금은 53억5000만원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여전히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와 주차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어린이보호구역 29곳은 원인과 보행동선, 과속단속장비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그 결과 보행로나 횡단보도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곳 173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200건의 개선 사항을 찾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주변 1.5만개 유해업소서 위반 사항 3천여건 적발**

관계 당국은 학교 주변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 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했다.

유·무인 점포 40곳에서 KC인증이 없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제품 96종을 적발해 판매 금지 조치했고, 불

응한 8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하는 사례 208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6800만원을 물렸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40만여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점검(8107개소)에서는 시설 노후, 기준 부적합 등 위반 행위 총 192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3건)하거나 개선 명령(550건), 시설보수(323) 조치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건국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

과기부, 6년간 55억 지원
ICT 유망기술 석·박사 인재 양성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건국대는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연간 10억원씩 6년간 55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건국대는 일반대학원에 메타버스융합학과를 개설하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예술·디자인, 컴퓨터공학을 아우르는 다학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 연계 사업을 통해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입학생은 전원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메타버스 공간과 경험, 지능 등을



건국대 전경. /건국대

융합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주제는 학생이 발굴해 지도교수와 구체화하고 이를 연구진 및 기업과 매칭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주도 창의 자율 연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인턴십-취업 연계 마이크로디그리로 구성해 메타버스, 확장현실(XR) 영상 및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공인 등 전문 기업에서의 실습

과 인턴십으로 실제 산업 현장도 경험할 수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대학과 협력해 메타버스 리빙랩도 진행한다.

이번 사업 연구책임자인 김형석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건국대는 가상·증강현실과 콘텐츠, 공학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메타버스 기반 창업과 산업 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업과의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가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선정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ICT 유망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현진 기자

이경 교수,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동국대 혁신 신약개발 전문가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이경 약학대학 교수(사진)가 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김연준)가 선정하고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대표이사 김창훈)이 후원하는 ‘2023년도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2023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이경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의약화학 기반의 신약개발 중개연구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경 교수는 혁신신약개발 전문가로 암 및 염증 질환을 조절하는 글로벌 수준의 화합물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개방형 중개연구를 통한 산학연 융합연구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암 특이적 저산소미세환경에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물질 LW6의 타겟이 M

DH2 (malate dehydrogenase 2)라는 것을 화학적 도구를 활용해 최초로 규명했다. 다학제간 중개연구를 통해 ID F-774와 같은 임상후보물질 및 수종의 항암 임상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개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우수한 여성 과학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수상자를 선정하고 마크로젠이 후원에 상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개교 21주년 기념식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17일 개교 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원광학원 흥산오도철 상임이사, 김윤철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 참석했으며 ▲개회 ▲연공상 수여 ▲유공 교원 표창 ▲공로상 수여 ▲우수 교직원 표창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올해 20년 연공상 수상자로 콘텐츠개발팀 이재민 직원, 10년 연공상 수상자로 신이철 경찰학과 교수, 명도일 한방건강약선학과 교수를 선정해 시상했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6월 1일부터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약 2000팀 캠퍼스타운 창업社 배출

연 매출·투자유치액 각 1000억 달해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약 2000팀을 육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년에게 일자리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39개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했으며, 작년 말 기준 누적 1963팀의 창업기업을 배출했다. 지난해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의 연매출액과 투자유치액은 각 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광운대 캠퍼스타운에서 각 대학의 강점 분야 특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화여대는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시장조사·마케팅을 도울 예정이다. 한양대는 오픈이노베이션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해 소셜벤처 창업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대학 내 연구실·실험실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교원과 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광운대는 로봇, 프롭테크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창업기업을 서포트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캠퍼스타운 출신의 유니콘 기업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Top5 창업 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 창업 생태계에서 캠퍼스타운이 밑거름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0

국민대, 창업 기업 발굴·연구 활성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맞손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최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학내 본부관 203호에서 초기 우수창업 기업 발굴 및 기업가정신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 ▲기업가정신에 관한 공동 연구 ▲창업교육(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발 등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청년층의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 기업가정신 함양을 돕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공유·실현할 수 있도록 확산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기관이다.

‘벤처 1세대’인 남민우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 이후 청년들이 가져야 할 기업가정신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남민우 이사장은 “국민대와 이번 MOU를 계기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홍재 총장도 “이번 MOU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김영수 사무총장, 최선락 팀장과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